

올해 음력설, 전통문화 요소 '인기' 만발

전통문화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회귀 추세 반영

음력설 기간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운남성 대리에서 염색을 배우고 사천성 자공에서 꽃등을 감상하고 신강 위글자치구 카스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는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설명절을 한껏 향수했다.

메이탄 여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달 '음력설 여행'의 전체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8%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중 '무형문화유산' 관련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체험'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의 검색량은 각각 168%, 321% 늘어났다. 대동, 양주, 천주, 경덕진 등 '무형문화유산' 도시의 항공권 예약량도 두배로 증가했었다.

항주에 사는 주녀사는 "올 음력설엔 가족과 함께 북경에 가서 설을 보냈다."면서 "인터넷에서 중국 공예미술관의 무형문화재 수공예 체험 활동을 보고 미리 표를 예약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이탄 플랫폼 통계에 보면 원단부터 중국공예미술관·중국무형문화유산관 검색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그중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티켓'은 1,000장 가까이 판매되었다.

한편 많은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시장, 공연, 전시,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 문화 활동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명절 기간 다채로운 문화관광 소비 선택지를 제공했다.

이중에서 음력설맞이 용품은 음력



▲ 전통 복장에 전통 등롱의 아름다움, 음력설 등불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설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었으며 음력설 문화의 핵심 요소였다. 음력설맞이 용품을 사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집단적식이자 정서적 공감 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음력설맞이 용품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는 전통문화 요소가 담긴 상품이 큰 인기였다.

징둥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맞이 용품 축제 기간에는 다양

한 전통 목판 년화 제품이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중 '버드나무 청목판 년화'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었다.

중경의 년화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강, 복건, 강서, 광서 등지의 판매량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무형문화유산 공예품인 사천, 호남, 광둥 등 지역의 저수 제품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

품이었다. 그중 색채가 화사하고 바느질이 세밀한 소주 저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했다.

징둥소비산업발전연구원의 관련 책임자는 이러한 소비 현상은 전통문화에 대한 중시를 보여준다고 동시에 또한 현대 사회의 추세를 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통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음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무용극 <영춘> 43 개 나라에서 200 여회 공연

제 17회 정신문명건설 '좋은 희곡 작품'상을 수상한 광둥성 심수시의 창작 무용극 <영춘>(咏春)이 얼마 전 프랑스 빠리의 무대에 올랐다. 빠리에서의 4회 공연 모두 객석은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극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오래동안 울려 퍼졌다.

"정말 아름답고 시적인 공연이었다."고 운을 뗀 팔레 데 콩그레 극장의 장 노엘 드레이 총매니저는 이번 무대는 중국의 전통 무술인 영춘권법과 현대 무용을 참신하면서도 재미있게 결합해 프랑스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용극 <영춘>은 조맹사 대춘의 회상을 시작으로 스테이지인 꿈을 이루기 위해 심수에 와 영화 <영춘>을 촬영하는 이야기와 극중 영춘부부가 항항에 가 영춘권법을 고양하는 이야기를 더블 스토리 라인으로 풀어내 '일대종사'와 꿈을 쫓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2022년 12월 심수에서 초연을 한 무용극 <영춘>은 이미 전세계 43 개 도시, 53 개 극장에서 200 여회 공연되었다.

"관객들이 이 무용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 8월 <영춘>이



영국 무대에 처음 올려졌을 때 프로듀서 한명인 한진 PD는 런던 공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 무용극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중국 무술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의 삶의 모습, 성격적 특징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역시 서양 관객들이 중국인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루트"라고 소개했다.

민족적일수록 세계적이다. 무용극 <영춘>은 권법으로 문화의 장벽을 뚫고 국제적 교류의 폭과 깊이를 탐색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 국제온라인

무형문화유산 '유포우산', 당지의 문화 명함



안휘성 선성시 경현 창교항 고봉촌에 위치한 국민유포우산(油布伞) 공장에서 생산한 전통 유포우산은 현지를 대표하는 문화 명함이다. 경현 유포우산 제조술은 안휘성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유포우산은 우산대와 가지 그리고 유

포를 만들고 말리는 등 크기는 12단계, 작게는 88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사진은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정국민이 학생들에게 유포우산 제조술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포를 만들고 말리는 등 크기는 12단계, 작게는 88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사진은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정국민이 학생들에게 유포우산 제조술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 신화넷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하북 '오교 곡예'

우리 나라 '곡예의 고장'으로 불리는 하북성 창주시 오교(吳橋) 현은 오랜 곡예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오교 곡예는 2,000 여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며 공연, 도구, 관리, 전승 등 측면에서 독특한 규칙을 형성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최근 수년간 현지는 오교 곡예의 계승 및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국내외 문화 교류를 위한 대표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사진은 오교곡예 대세계 장호문화성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곡예단. / 신화넷

팟캐스트 청취자 증가, 직장인과 학생 위주

우리 나라에서 '오디오 경제'가 열기를 더하면서 마니아층 위주로 즐겼던 팟캐스트(播客)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 오디오 업무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 중국어 팟캐스트 프로그램 수는 2021년에 비해 7배 증가했다.

팟캐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를 일컫는다.喜马拉雅, 荔枝 등의 오디오 플랫폼은 인문, 과학기술, 비즈니스, 경제 등 다양한 류형의 팟캐스트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팟캐스트 청취자의 상당수는 주로 1선 도시 및 신 1선 도시 사람들이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1월 喜马拉雅에서 발표한 '2023 喜马拉雅 중국어 팟캐스트 생태계 보고서'를 보면 喜马拉雅 플랫폼



▲ 강소성 남경의 한 팟캐스트 진행자

의 중국어 팟캐스트 청취자 수는 2억 2,000 만명을 넘어섰다.

리즈 앱 사업 책임자 하경은 지난해 리즈 앱 팟캐스트의 진행자 수가 30%

증가하고 단일 진행자 콘텐츠에 대한 청취자 재방문률은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팟캐스트 콘텐츠 및 창작자 류형이

다양해지면서 팟캐스트의 상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 오디오업무위원회 비서장 허금파는 "유료 팟캐스트, 팟캐스트 광고, 브랜드 팟캐스트 등이 주요 상업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난해 약 100 개의 브랜드가 팟캐스트 플랫폼과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했으며 약 1,000 개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 응용은 팟캐스트 업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되었다. 중국전매대학 인공지능학과 부교수 도죽립은 AI 기술은 창작자가 개인화된 콘텐츠를 보다 정확하게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부 오디오 플랫폼도 AI 모델을 도입해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팟캐스트 콘텐츠를 청취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화넷

상나라 유물서 '3,000 년전에 빛은 술' 발견



▲ 3,000 년전 증류주가 발견된 청동 올빼미 술단지

산둥성 제남시 고고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상나라 청동 올빼미 술 단지에 남아있던 액체가 증류주로 밝혀졌다. 이 증류주는 3,000 년전 상나라 때 빚어진 것이다.

청동 올빼미 술단지는 지난 2010년 12월 제남시 고고연구원이 대신장(大辛莊) 유적지에서 발굴한

M257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상나라 말기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고고학자들은 단지 안에 소량의 액체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용기와 뚜껑이 단단히 결합돼 개봉하지 못했다.

최근 산둥성 문화보존원감정센터의 문물보존원은 청동 올빼미 술 단지의 녹슨 부분을 처리한 후 뚜껑을 열었다. 용기 안에 있던 액체 샘플을 밀봉해 산둥대학 환경사회고고 국제협력연합실험실로 보내 검사한 결과 3,000 년전의 증류주로 밝혀졌다. 이번 발견으로 중국의 증류주 제조 역사가 고대 예금 증류주 제조 기록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나라에서 한나라 사이의 중국 증류주 공백을 메웠다. / 신화넷

8,000 여년전의 고대 논밭 호남에서 발견

호남성 상덕시 리현의 리가강 유적지에서 팽두산 문화 시기 고대 논밭 두 곳을 발견했다. 이는 8,000 여년전부터 이곳 선민들이 벼농사를 지으며 살았음을 말해준다.

고고학자들의 이 발견으로 장강 중류의 초기 논밭 출현이 약 2,000 년 앞당겨졌다. 앞서 동일한 지역의 리현 상두산 유적지에서 6,500 년전의 논밭이 발견된 바 있다. / 인민넷



▲ 리가강 유적지에서 출토된 탄화미